

보도자료

2010년 2월 3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김재영 과장, 김순철 사무관 ☎ 750-2338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강경성 과장, 황현배 사무관 ☎ 2110-39

“2012년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 보급형 디지털TV 선정 보급” - 방통위 · 지경부 · 환경부 「디지털TV 보급 활성화 계획」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2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TV 보급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별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청자들은 2012년 12월말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TV를 구입하거나 기존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가입자는 TV방송을 시청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음)

현재 국내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은 55.1%로 비슷한 시기에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외국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일 및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

： 미국(’09.6.12. 98%), 일본(’11.7.24. 69.5%), 영국(’12.12.31. 89.8%)

※ 우리나라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 : ’08.12월 38.7% → ’09.6월 47.9% → ’09.12월 55.1%

① 보급형 디지털TV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TV의 보급 확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보급형 디지털TV를 선정하고, 금년 5월부터 일반 시청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전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보급형 디지털TV 모델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홈페이지(www.rapa.or.kr)를 통해 공개하고 공모접수에 들어간다.

보급형 디지털TV는 106.68cm(42")이하 6종류를 대기업, 중소기업의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TV가격, 성능, A/S 등 심사를 통해 2월말~3월초까지 선정하고 TV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 분	LCD TV (LED TV 포함) - 대기업 및 중소기업별 각 1개 모델	CRT TV : 각 1개 모델
선정모델	화면크기 106.68cm~101.6cm(42"~40")	화면크기 73.66cm(29")
	81.28cm(32")	
	71.12~60.96cm(28"~24")	53.34~50.8cm(21"~20")
	58.42~48.26cm(23"~19")	

선정된 보급형 디지털TV는 디지털전환 포털사이트(www.dtv.go.kr) 등을 통한 홍보, 정부 인증로고 부착 등을 통해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 아날로그방송을 시범종료하는 경북 울진, 전남 강진, 충북 단양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직접수신세대가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해서, 디지털 컨버터(무료보급)를 선택하지 않고 보급형 디지털TV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상당을 구매 보조할 계획이다.

② 사회복지시설, 디지털TV 보급 지원

지식경제부는 저효율 가전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TV수상기를 2011년부터 에너지 저소비 제품인 디지털TV로의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③ 폐아날로그TV의 수거 및 재활용 체계 구축

환경부는 TV제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아날로그TV의 수거·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재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순환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④ 공공기관 아날로그 TV의 단계적인 교체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는 2012년말까지 3개년에 걸쳐 아날로그 TV를 모두 디지털TV로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도소, 경찰서, 우체국 등 일선기관이 많은 경우는 단계적인 디지털TV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⑤ 아날로그 TV 제조 및 수입판매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아울러,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TV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국내 판매용으로 아날로그TV를 제조·수입할 수 없고, 디지털TV만 생산할 수 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TV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아날로그TV 및 관련 전자제품에 대한 제조 또는 판매 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재고 아날로그 TV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2012년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시청자에게 디지털전환 사실을 충분히 공지하게 하고 있다.

붙임 : 디지털TV 보급활성화 계획 1부. 끝.